

또 끝내기 ... 넥센 PO '1승' 남았다



넥센 김지수(왼쪽)가 9일 오후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 연장 10회말 1사 3루 상황에서 끝내기 안타를 날리며 3-2로 이긴 후 기뻐하고 있다. 양 팀은 11일 오후 6시 잠실구장에서 3차전을 치른다.

김지수 결승타 ... 연장 혈투 끝 두산에 3-2 승리

준플레이오프 2차전

지난 2008년 창단 후 처음으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은 넥센 히어로즈가 이를 연속 끝내기 안타로 두산 베어스를 잡고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눈앞에 왔다. 이를 연속 끝내기는 포스트시즌을 통틀어서 역대 처음이다.

넥센은 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5전3승제) 2차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2-2로 맞선 10회말 1사 3루에서 김지수의 끝내기 우측간 적시타가 터져 3-2로 이겼다.

전날 1차전에서도 9회 이택근의 끝내기 안타로 4-3으로 승리한 넥센은 이를 연속 끝

내기로 홈 2연전 승리를 씩씩이해 플레이오프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뒀다. 남은 세 경기에서 한 번만 이기면 왜 창단 후 처음으로 가을 야구를 하는 넥센으로서는 정규리그 2위 LG 트윈스가 기다리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기웠다.

10회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넥센 한현희가 승리투수가 됐고, 역시 10회 마운드에 오른 두산 오현택이 패전의 명예를 썼다.

두산은 불펜진의 난조와 잇단 실책으로 자멸하며 일찌감치 가을 야구를 접을 위기에 놓였다. 두 팀은 하루 쉬고 11일 오후 6시 두산의 홈인 잠실구장에서 3차전을 치른다. 8회말 0-1로 뒤진 넥센이 선두타자 서건

창의 불넷에 이은 서동욱의 보내기번트로 1사 2루의 찬스를 잡자 두산은 투수를 홍상삼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홍상삼이 박병호 타석 때 두 차례 폭투로 2루 주자 서동욱을 홈까지 밟게 해 동점을 허용했다. 박병호마저 불넷으로 출루시킨 홍상삼은 강정호 타석 때 다시 폭투를 기록, 포스트시즌 한 이닝 최대 폭투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넥센의 기쁨 역시 잠시. 두산은 9회 이종욱이 홈을 파고들어 2-1로 앞섰다.

패색이 짙던 넥센은 9회말 첫 타자 김민성이 불넷을 골라 다시 찬스를 잡았다.

이어 두산의 바뀐 투수 정재훈을 상대로 대타 장기영의 보내기번트와 유한준의 우전 안타로 1사 1,3루의 결정적 국면을 맞았다.

두산 투수는 다시 윤명준으로 바뀌었고 대타 문우람 타석 때 유한준이 2루 도루에 성공한 뒤 문우람까지 불넷을 골라 만루로 찬스가 이어졌다.

그러자 두산 마운드에는 김선우가 올랐다. 넥센은 서건창이 밀어내기 불넷을 얻어 기어코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서동욱이 삼진, 이택근이 2루 땅볼로 허무하게 물러나 결국 준플레이오프 사상 12번째 연장전을 맞게 됐다.

한현희가 10회 2사 후 연속 불넷으로 주자를 1,2루에 뒀지만 실점없이 막은 뒤 넥센은 10회말 선두타자 박병호가 몸에맞는 공으로 살아나가 다시 기회를 맞았다. 강정호가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뒤 김지수 타석 때 투수 오현택의 1루 견제구가 뒤로 빠져 박병호는 3루에 안착했다. 그러고는 김지수가 우측간을 가르는 깨끗한 적시타를 날려 치열했던 승부를 갈랐다.



KIA의 몰락 ... 2013 프로야구 결산

❸ 실패에 대처하는 자세

타이거즈 명가 재건 위해 근성 살릴 지도자 영입을

실패에 대처하는 그들의 자세가 타이거즈의 미래를 바꾼다.

KIA 타이거즈의 2013년은 구단 역사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대실패의 해다. 1위에서 8위까지 결집할 수 없이 추락을 했던 KIA, 상처로 끝난 2013시즌에서 더 큰 미래를 찾아야 한다.

◇멀리보는 팀 운영
KIA는 '레전드' 선동열 감독을 영입한 뒤 넉넉한 지원을 통해 명가 재건에 나섰다.

최대 규모의 마무리 캠프단이 꾸려졌고, 50억원을 들여 김주찬을 불러들이는 등 지원사격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2년 연속 4강 탈락. 특히 올 시즌에는 구단 안팎으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8위의 성적만큼이나 아픈 상처도 남겼다.

김조호 단장은 2013시즌 실패에 대해 "그동안 선수 육성의 방향이 잘못됐다. 뒤늦게 깨달았다. 다 내 책임이다. 강하고 엄격하게 2군·재활군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선수층의 원인은 구단의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새로 개장한 환경 기아챌린저스 필드를 기회와 육성의 땅으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팀컬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KIA로 이름이 바뀐 2001년부터 김성환·유남호·서정환·조병현·선동열 감독이 사령탑에 올랐다. 앞선 감독들의 퇴장은 아슬아슬하지 못했다. 성적부진, 눈앞에 급급한 선수단 운영, 무기력한 팀컬러 등의 문제점으로 중도에 사령탑이 교체되곤 했다.

이는 구단의 책임도 크다. 하나의 목표를 향한 큰 틀에서의 협력과 소통이 부족했다. 지도자에 따라 팀의 모습은 시기각각 변했고 팬들은 실망했다. 타이거즈만의 색을 정립해서 그에 맞는 지도자를 영입하고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무관심·간섭이 아닌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현장의 지원과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

◇지역캠프가 아닌 힐링캠프
시즌 종료와 함께 휴가를 보냈던 선수단은 10월 2군 훈련 재개를 시작으로 13일 1군 선수들까지 훈련에 돌입하면서 재출발을 위한 출발점에 선다. 오는 22일부터는 오키나와에서 마무리 캠프가 진행된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힐링 캠프'가 되어야

한다. 실패의 원인을 부상, 훈련부족에서만 찾는다면 올 시즌의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초반 KIA의 모습은 다른 팀들의 기를 질리게 했다. 4강에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분위기를 갖췄지만 부상과 휴식기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팀을 이끌 베테랑도 마땅치 않았고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제 몫을 하지 못했다. KIA의 연봉킹 김주찬을 필두로 이범호·송은범·윤석민·이용규·서재용 등의 부족했던 활약으로 '고비용저효율'이 눈에 띈 한해였다.

모수를 찾지 못하며 우왕좌왕한 벤치, 이틀값 하지 못한 주축 선수들과 승부근성 결핍의 젊은 선수들 그리고 내부의 불균형을 조율하지 못한 구단. 처참한 실패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찾는 게 우선이다.

또 코칭스태프는 훈련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수동적인 아닌 자율적인 훈련을 피하고 선수단을 이끌어가야 한다. 결국 그라운드 밖이 아닌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내부 육성과 열린 기회로 내부 경쟁을 강화하면 훈련의 효율성과 경기의 집중력은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

◇팬들은 최선을 원한다
타이거즈는 32년의 프로야구 역사에 V10의 위업을 이룬 전통의 명문구단이다. 타이거즈는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이자 희망이었다. 세월이 변했지만 타이거즈가 가지는 의미와 위력은 여전히 크다.

KIA에 올고 웃는 팬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성적이 아니다. 그라운드 위 선수들이 타이거즈 선수다운 당당한 승부와 열정을 다한 플레이를 펼치는 것을 바란다. 128경기 중 그냥 지나가는 한 경기는 없어야 한다. 승패를 떠나 9회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

올 시즌 KIA는 성적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큰 실망을 안겨줬다. 신생팀 NC에게도 밀린 성적과 일찌감치 승패를 결정지어버린 덕아웃 분위기는 팬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다. 애매전쟁을 벌여가며 경기장을 그득 메우던 팬들의 열정은 선수단의 모습처럼 차갑게 식었다.

팬이 없는 프로스포츠는 없다. V10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2013시즌을 반성하고 옛 선배들이 가졌던 자신감으로 2014시즌을 준비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스턴 CS 진출

〈챔피언십시리즈〉

탬파베이에 3승1패 ... 5년만에 아메리칸리그 우승 노려

미국 메이저리그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AL) 최고 승률 팀 보스턴 레드삭스가 5년만에 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에 진출했다. 보스턴은 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벌어진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 4차전에서 세인트피터즈버그의 역전 결승 적시타에 힘입어 와일드카드 탬파베이 레이스를 3-1로 물리쳤다.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거둔 보스턴은 ALCS에 선착해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2007년 이후 6년 만에 리그 우승을 노리게 됐다. 2008년 ALCS에서 탬파베이에 4승 3패로 패한 보스턴은 5년 만에 디비전시리즈에서 빛을 보았다.

정규리그에서 97승 65패를 올려 AL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한 보스턴은 13일 홈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오랜덤 애슬레틱스의

승자와 ALCS 1차전을 치른다.

AL 중부지구 챔피언인 디트로이트는 이날 오 랜덤과의 디비전시리즈 4차전에서 21승 투수 맥스 슈어저를 구원 투입하는 강수 끝에 8-6으로 이기고 승부를 최종 5차전으로 몰고 갔다.

양팀의 5차전은 11일 오전 10시 오 랜덤의 홈인 캘리포니아주 오 랜덤의 오코폴리시움에서 열린다.

한편 1승 2패로 탈락 위기에 몰려 총력전으로 맞선 디트로이트가 9일 열린 경기에서 짜릿한 뒤집기를 연출했다. 7회말 선두 빅터 마르티네스가 승리를 부르는 동점 솔로포를 날리자 계속된 2사 2루에서 오스틴 잭슨이 우전 적시타를 날려 5-4로 역전에 성공했다. 주도권을 잡은 디트로이트는 8회 2사 만루에서 나온 오 랜덤 구원 브렛 앤더슨의 폭투와 오마르 인펀트의 2루타를 묶어 3점을 보태고 승부를 갈랐다.

디트로이트-오 랜덤은 11일 오전 10시 5차전에서 승부를 가른다. /연합뉴스

류현진 3차전 선발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LA타임스 15일 선발 예상

류현진(26·사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4승제)에서 3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지인 LA타임스는 9일(이하 한국시간) 인터넷판에 다저스의 NLCS 선수 가용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류현진의 3선발 가능성을 점쳤다.

보도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NLCS 1차전에서는 잭 그레인키가 옛세를 쉬고서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신문은 그레인키-커쇼에 이어 류현진이 15일 열리는 NLCS 3차전 선발로 마운드를 책임지리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류현진은 7일을 쉬고 선발 출전한다.

미국 프로야구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도 “류현진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서 다친 것으로 보였으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며 “류현진이 NLCS 3차전에 선발 등판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류현진은 “NLCS 등판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를 통해 배워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12일 브라질과 평가전

한국 이근호 “강한 인상 남길 것”

오스카 “한국은 매우 어려운 팀”

홍명보호(號)의 유력한 원톱 후보인 이근호(28·상주)가 강호 브라질에 한국에 대한 강인한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근호는 9일 파주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기 후 브라질이 한국도 강팀이란 것을 알고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동원(선덜랜드), 구자철(볼프스부르크)과 함께 이번 대표팀에 공격수로 이름을 올린 이근호는 브라질전에 원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빈공이 홍명보호의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근호가 3명의 공격수 자원 중에선 기록과 경험상으로 가장 앞서기 때문이다. 이근호는 A매치 54경기에서 18골을 올려 지동원(A매치 24경기 8골), 구자철(32경기 11골)보다 앞선다.

브라질 축구대표인 오스카(22·첼시)는 홍명보호(號)와의 결전에서 만만한 경기가 되진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오스카는 9일 파주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올림픽때 한국과 붙었는데 매우 어려운 경기였다”며 “한



이근호

오스카

국전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스카는 지난해 8월 런던올림픽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 결승 길목에서 겨뤄본 적 있다. 당시 브라질은 한국을 3-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오스카는 “전반까지 1-0으로 앞섰는데 그때도 골을 어렵게 넣었다”며 “스완지시티에서 뛰던 선수(기성용)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2일 밤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브라질(FIFA랭킹 8위)과 맞붙는다. /연합뉴스